

“신나게 달려봅시다”



안양 운불련이 같은 생활권의 안양·군포·의왕·과천 지역의 불교를 통합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은 8월 2일 열린 강동수 8대 회장 취임 및 창립 11주년 기념법회 모습.

안양 운불련, 군포·의왕·과천 활동권역 통합

4개 지역 아우르는 통합 신도회 추진 교통 봉사, 쌀 나눔행사 등 전개 계획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안양지역회가 활동권역 확대와 지역불교계 통합에 나서 주목된다.

운불련 안양지역회는 안양시 뿐만 아니라 같은 생활권으로 통하는 군포, 의왕, 과천시를 한 권역으로 묶은 지역회로 탈바꿈했다. 안양지역회에서 안양·군포·의왕·과천지역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 안양지역회라는 명칭과 달리 안양·군포·의왕·과천에 회원을 고루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계기로 안양·군포·의왕·과천지역회(회장 강동수)는 4개 지역의 사찰신도회를 아우르는 통합신도회를 발족시키기 위한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직장·직능 신행단체가 지역불교 통합운동을 전개하는 사례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 운동의 출발은 안양·군포·의왕·과천지역회 지도법사단으로부터 시작된다. 도광(도광사, 성법(영불암), 혜원(한마음선원) 스님 등 안양지역 스님 3명과 군포시의 덕산(천지사), 성권(수리사) 스님, 의왕시의 성행(정계사), 덕문(용화사), 월종(대안사) 스님, 과천 보광사 중훈 스님 등을 지도법사로 추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안양·군포·의왕·과천지역회는 이날 추대된 지도법사단 모임을 통해 4개 지역의 불교계 화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불교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지임하고 나선 것이다.

안양·군포·의왕·과천지역회는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어 지역 스님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합신도회 구성도 지도법사단 사찰의 신도회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운전기사 불자들의 지역불교계 통합 원력에 지도법사단도 적극 동참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안양·군포·의왕·과천지역회는 또 회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개인택시 불교조직인 ‘목조’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목조’가 생길 경우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휴무가 가능해 회원들의 법회활동은 물론 봉사활동 확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안양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 안양시의 허가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 밖에도 안양·군포·의왕·과천지역회는 군포 매화복지관 교통봉사, 장애인 나들이차량 봉사, 사랑의 쌀 나눔행사 등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양·군포·의왕·과천지역회는 이같은 계획을 추진해 나갈 집행부로 고동호, 한성희, 박종규 부회장, 정수범 사무국장 등을 선출했다.

강동수 52·법전 회장은 “질서와 예절이 있는 운불련, 열심히 일하는 운불련, 봉사하는 운불련, 신행생활을 열심히 하는 운불련 등을 4대 지표로 삼고 지역불교 통합과 활성화를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031469-6300)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직장인 위한 야간법회 연다

봉은사 9월부터 매주 수 오후 7시30분 반야심경·천수경 등 강의

서울 강남 삼성동 봉은사가 직장인을 위한 ‘열린 법회’를 개설한다. 특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불자들이 사찰에서 법회를 연 경우는 많지만 모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회는 봉은사가 처음이다.

봉은사(주지 원혜)는 직장인들을 비롯해 낮시간에 법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해 9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법당에서 야간법회를 연다고 8월 8일 밝혔다.

이 법회의 활성화를 위해 봉은사 신도지역조직인 6봉은도 함께 법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열린 법회’에서는 초발심자경문과 반야심경, 천수경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은 “서울 강남 복판에 있는 봉은사의 지리적 여건을 살려 법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개설하게 됐다”며 “현대사회의 개인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를 극복하고 일상에 쫓겨 생활인들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213218-4800)

우리단체 이사람

고영순

자비선행회 부설 한빛외국인노동자센터 팀장



광주 동신고 영어교사인 고영순(46·고보심·사진씨는 지역에서 불자 외국인들의 대모로 통하고 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에 불자 외국인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들어주고, 때로는 해결사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4000여명. 이 가운데 절반이상이 네팔 스리랑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온 불자들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 의료, 복지도 문제지만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음 편히 쉬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불자들이 낯선 땅에서 고향을 느끼며 쉬 수 있는 곳은 바로 사찰입니다.”

3년전, 대원사에서 외국인 템플스테이 통해 자원봉사를 하던 고 팀장은 자비선행회에서 외국인노동자센터를 개설하자 ‘물 만난 고기’가 되어 휴일도 없이 외국인노동자들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고 팀장은 센터에서 교육, 상담, 의료, 생활지원, 문화지원 교류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한국문화체험, 한

글을 사 만들기, 성지순례, 불교문화체험 등은 인기가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참여가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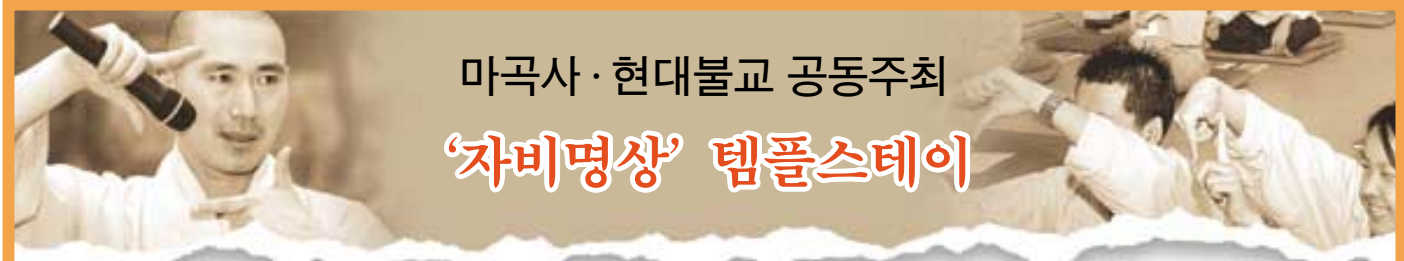
이런 노력으로 지난 5월, 자비선행회가 지자체에서 시상하는 ‘좋은동네 밝은동네’ 대상을 수상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주부, 직장인으로서 바쁜 가운데서 불자 외국인노동자 일이라면 최우선으로 정해 일하고 있는 고 팀장은 “항상 웃으며 낙천적으로 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며 겸손해한다.

광주에서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많이 모여 사는 하남공단내에 ‘이주 외국인노동자 법당 건립’을 발원하고 있는 고 팀장은 “외국어가 가능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아쉽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교류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교사와 약사, 기자 등 고학력자 출신들이 많아 그들이 이 땅을 떠나 귀향하면 한국을 알리는 민간외교관이 될 것입니다.”

이준엽 기자



마곡사·현대불교 공동주최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아내의 손을 말없이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랜만에 내 남편, 아내의 손을 잡아봤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서로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장점 50가지 쓰기는 부부에게 서로 몰랐던 부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서로에게 편지쓰기를 마친 뒤 눈을 감고 서로를 느껴봅니다. 손끝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집니다.

7차, 부부를 위한 템플스테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쓰는 일기는 어떻게? 살뜰한 고백들이 넘쳐나겠지요. 8월 5~7일 광주 마곡사 연화당에서 열린 ‘부부’를 위한 7차 자비명상 템플스테이가 그랬습니다. 무뎠던 남편들의 사랑 속삭임에 아내들은 눈물을 연신 흘렸습니다.

흔히들 마음이 열려야 사랑이 보인다고요.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이 낯설게만 느껴질까요? 그동안 비뚤다고,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15쌍의 부부중 황금 같은 여름휴가를 이번 템플스테이에 맞췄다는 김용기(52·서울 도봉구 창5동)-김계희(49) 부부와 정도영(42·서울 양천구 신월7동)-서미영(42) 부부, 임신 중인 아내와 참가한 요가 강사 이강연(38·서울 마포구 서교동)-송현정(26) 부부의 체험일기를 들여다 봤습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까? 그럼 눈으로 대화하세요” 김용기(오른쪽)·김계희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눈으로 대화하고 있다.

삶에 지쳐 손 한번 잡지 못했던 당신이 부처입니다

당신은 ‘불법을 담은 그릇’입니다

남편과 아내들은 첫날인 5일 서로에게 108배를 올렸습니다. 다들 머쓱해하더군요. 어떤 아내는 “40년 결혼생활에 남편에게 처음 절을 받아본다”고 했고, 어떤 남편은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하더군요.

그 중, 동갑내기 정도영-서미영 부부의 일기를 들여다봤습니다.

“나의 눈이 맑지 못해 당신이 불법을 담은 그릇이고 부처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절의 부처님에게만 절을 했죠. 매일 일과 스포츠를 달고 살던 당신에게 ‘더 사랑해달라. 더 아껴 달라’며 부담만 주었죠. 그런 제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부처입니다.”(서미영)

물론 남편 정도영씨의 일기도 보았지요. ‘사랑하는 서미영’이란 말부터 글머리에 쓰여 있더군요.

“항상 고맙고 든든하고 미더운 사람. 당신을 힘들게 해도 별 말없이 내게 힘이 됐습니다. 우리 아들 용석에게는 친구였고, 내게는 늘 어린아이입니다. 여보! 이렇게 살아갑시다.”

대화 나누며 사랑 확인하세요

결혼 22년차 김용기(52·서울 도봉구 창5동) 김계희(49) 부부. TV에서 마곡사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본 아내 김계희씨가 먼저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108배가 끝나고, 곧장 ‘자기 장점 50가지 쓰기’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펜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내 장점을 찾지 못할까?’ 다들 한동안 상념에 젖은 채 펜만 들고 있습니다.

김계희씨의 일기는 이렇습니다. “전쟁 치르듯 살았죠. 바쁜 나날은 정작 나를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았어요. 시부모와 친정부모, 그리고 남편과 자식들이 전부였

니까요. 지난 해 가을, 당신이 교통사고 났을 때 이런 상상을 했었죠. ‘당신이 내 곁을 떠난다면’ 하고 말이죠. 저도 모르게 가슴이 ‘쿵쿵쿵’ 뛰었고, 두려움이 거칠없이 다가왔어요. 순간 당신을 봤어요. 자고 있는 당신에게서 안심을 얻게 됐죠. 지금도 그 상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눈이 뜨인답니다. 여보! 건강하게 살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지금처럼 살아요.”

남편 김용기씨의 일기에서도 사랑은 물론 묻어나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표현하지 못한 경상도 사나이로 이해해줘요. 그간 섭섭했던 점이 하나 둘이 아니겠지만, 감동처럼 그냥 흘러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당신과 나를 위한 삶도 살아요. 서로에게 버림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나무 가꾸며 행복하게 살아요

‘부부명상’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맨발 산행으로 진행됐습니다. 신발에 익숙했기에 무척이나 낯선 경험이었지요.

결혼한 지 6개월 된 이강연(38·서울 마포구 서교동) 송선정(26) 부부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발우로 아침공양을 마치고, 15쌍의 부부는 맨발로 마곡사를 나섰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 격정으로 남편 이씨는 맨발로 걸음을 땀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귤속껍질 속삭였습니다. 덕분에 기자는 둘만의 맨발 데이트에 불참객이 돼 버렸지요.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다른 커플처럼 ‘최근 후 짧은 연애’ 과정 없이 늘 붙어서 지냈으니, 조금은 심심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부부 같은 연인, 연인 같은 부부로 큰 부담 없이 사랑의 나무를 가꿔왔잖아. 행복하기 그지없어. 당신의 마음을 다 헤아려주진 못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내 감정을 막연하게 다 알아주기를 바랐지. 그런데 이렇게 함께 걸으며 말을 나누니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이강연)

“이번 부부명상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익숙함에서 낯설음을 발견한 거예요. 정작 함께 살면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서 알거라’는 착각 속에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눈으로 말하고, 입으로 서로를 듣기로 해요.”(송선정)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108배 ‘새벽 솔길 걷기 명상’ ‘자기 장점 50가지 쓰기’ ‘서로에게 사랑을 보내는 편지 쓰기’ 등의 프로그램은 낯설게만 느껴졌던 ‘솔직함’을 익숙한 삶으로 바꿔줬습니다.

지도법사 마가 스님(마곡사 포교국장)은 부부들에게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 줄 거라’란 기대감, 그것에서 오는 섭섭함. 그 과정을 왜 겪으려 합니까? 미세한 간극은 부부간에 독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물어보세요. 눈과 입으로 확인하세요. 그래야 서로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글·사진/마곡사·김철우 기자

맨발로 산에 올랐습니다. 모란 홀들로 발바닥은 얼얼했습니다. 내리는 발걸음이 훑칠 놀라움과 즐거움만 했지요. 하지만 꼭 잡은 당신의 손은 포근한 진흙이 돼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친 산길을 걸으며 즐거웠습니다.